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in this world. Personally, I quite like deserts. However, they are harsh places in which to live. Yet they can picture those times when life is harsh for us. For then it's almost like living in a desert. We wonder where the world is heading when there's so much wrong with it. Sometimes, the voice of God in His Word seems to dry up. We feel lost and alone. We lose sight of the 'big picture' of God's plan.

To use a different metaphor, we can get caught up in the noise of life. In other words, we're distracted by the difficulties we face. It's like trying to concentrate on your tasks while heavy machinery works outside your window. Unless you're deaf, it's almost impossible to concentrate.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삶이 힘들 때 그곳에서의 시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사막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의아해합니다. 때로는 성경 속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계획의 '큰 그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비유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삶의 소음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들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는 마치 창문 밖에서 중장비가 작업 중인데 내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Like sunlight breaking through the clouds, we need a glimpse of how God works. We want to be able to see into the mind of God, so that we can see His big picture. That's what Habakkuk was given. As it was in Habakkuk's time, so too it is for us. Today, we need God's Word more than ever, to strengthen and sustain us. We need to know that God is working His purpose out for His glory. For we live in a world that has been corrupted physically and spiritually. It's not the perfect Garden of Eden that Adam and Eve first saw. The land, sea and sky are polluted. Life is polluted by greed and all forms of evil. Spiritually, the world is polluted by a weakening of evangelical faith. Associated with that is the rise in religious pluralism, the idea that all religious beliefs are equal in value.

햇빛이 구름을 뚫고 비추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짝 엿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 그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박국에 받은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지탱시켜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목적을 행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보았던 완벽한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오염되었습니다. 삶은 욕심과 온갖 형태의 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복음주의 신앙이 약화됨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교 다원주의, 즉 모든 종교적 믿음이 그 가치에 있어 동등하다는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Some people believe that all of the world's religions see the truth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ey say that it's like climbing a mountain from different sides. Now, that sounds nice but it is nonsense. It might be true if you were on top of the mountain watching everyone else ascend. But that cannot be, for no one stands there. For, in this view of the world's religions, no one knows the whole truth. You cannot be there on top of that mountain. Furthermore, all religions are not striving to reach the same goal.

We, who are Christians, know that the cross makes the difference. No other system of belief is based 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a Saviour.

혹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른 관점에서 진실을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른 쪽에서부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산 정상에 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 종교의 관점에서는 아무도 진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산의 정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교가 같은 목표에 이르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십자가가 그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어떤 신앙 체계도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Listen to 1 Corinthians 15:13,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Can we be sure that Christ was crucified and raised three days later? Yes!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is clear. Whatever people might like to think and say, Christianity is true. If you doubt this, then I urge you to examine the evidence. In fact, you owe it to yourself to examine the claims of Christ. Your life, now and in the future, depends upon it.

What's God's perspective on all this? In Scripture, we see how God reveals Himself as Creator and Redeemer. We see how God not only loves the world, but that He *is* Himself, love (1 John 4:16b). Only in Christianity will you find a personal God who is love. Love motivates everything God says and does.

고린도전서 15:13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부활의 증거는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의심하신다면,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주장을 검토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자신을 드러내심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지 봅니다 (요한일서 4:16b).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사랑이신 개인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But, don't confuse God's love with some warm, mushy feeling inside you. God isn't a fluffy pussycat or a cuddly puppy. Nor can He be summed up in religious tolerance. God hates sin. His wrath is always against sin. This leads to His justice. Sin must be punished.

However, God's wrath against sin is softened with mercy and grace. We see this in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e word, *world*, in John, has a negative connotation. In other words, this world is at enmity with God. Yet this is the world He has made. This is the world Christ died to save. Romans 5:8b,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의 무언가 따뜻하고, 몽클한 느낌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솜털 같은 고양이나 껴안고 싶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 관용으로 요약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의 진노는 항상 죄를 향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정의로 이어집니다. 죄는 심판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와 은혜로 누그러집니다. 이는 요한복음 3:16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세상입니다. 로마서 5:8b,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Habakkuk chapter 2 reveals God's plan for the ages. The LORD says in 2:3a,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Habakkuk's complaint is also our complaint. God also reveals the contrast between the wicked and the righteous. Listen once more to 2:4, 5a, ***See, he (the wicked) is puffed up; his desires are not upright—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indeed, wine betrays him; he is arrogant and never at rest.***

Nestled in between God's words to the wicked is one of God's gems, a word of promise: *the righteous live by faith.* Here is hope for a nation (Judah) that had largely turned away from God. God would not hesitate to punish the violence in Judah. But a faithful remnant would survive. Their trust in God would be rewarded.

하박국 2 장은 오랜 세월이 거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2:3a 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의 불평은 우리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악인과 의인 사이의 대조되는 점을 드러내십니다. 2:4 과 2:5a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그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악인의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 중 하나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한 나라 (유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벌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남은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What does the Lord have to say to those who persecute others? Listen to Habakkuk 2:12, 13, ***“Woe to him who builds a city with bloodshed and establishes a town by crime! Has not the LORD Almighty determined that the people’s labour is only fuel for the fire, that the nations exhaust themselves for nothing?”*** Just as ancient cities were destroyed by fire, so the Lord will one day come with fire, in judgment. Listen to 2 Peter 3:10,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will be laid bare.***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박국 2:12, 13 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고대 성읍들이 불에 타 파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불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10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Why do we live in cities? Together, we are to form a culture and a community that is to glorify God. Yet this has rarely, if ever, been achieved. Man’s arrogance led to the disaster at Babel (Genesis 11:4). The people had built a city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Finally, in judgment, God scattered the people all over the earth and confused their languages (Genesis 11:5-9).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run cities as a theocracy with a united church and state. In the Christian community they’ve never been totally successful. These days, Islam seeks to unite church and state. But that’s an even bigger disaster.

우리는 왜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함께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바벨에서의 재앙 (창세기 11:4)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으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5-9).

여러 해에 거쳐 교회와 국가가 연합된 신권 정치로 도시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이는 한번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교에서 교회와 국가를 연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지어 더 큰 재앙입니다.

Today, we wonder why God doesn’t act as quickly as He has done in the past. Habakkuk helps us. The Babylonians would take the people captive to Babylon for some 70 years. But after that time, they were overrun (by King Cyrus), just as God had predicted through the prophet Habakkuk.

So too, God will one day bring an end to violence on this earth. In Revelation 16-18, Babylon is portrayed as the world set against God. In 17:1 Babylon is referred to as the great prostitute. Paul Gardner comments, ***Just as a prostitute sells her body to another person to be used as he or she wants, so the world that has turned against God has sold itself to Satan to do as he pleases.*** But Satan only brings on death and destruction. And so it’s with good reason that Revelation refers to God as the Alpha and the Omega (1:8). The Lord Jesus uses these words to refer to Himself in 22:13,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God is sovereign in all the earth. He has the final word.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보다 빨리 행하지 않는지 의아해 합니다. 하박국이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약 70 년간 사람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고레스 왕에 의해) 유린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의 폭력을 끝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18 에서, 바빌론은 하나님께 맞선 세상으로 그려집니다. 17:1 절에서 바빌론은 큰 창녀로 지칭됩니다. 폴 가드너 (Paul Gardner)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사탄에게 스스로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망과 파괴 만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1:8) 지당한 것입니다. 주 예수는 22:13 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해 스스로를 지칭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최후 결정권자입니다.

Habakkuk 2:14 seems (at first) to be unrelated to the consuming fires of God’s judgment in 2:12-13. We read in 2:14,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But when Isaiah uses similar wording (Isaiah 11:9), his prophecy concerns the coming of the Lord Jesus. And the Lord Jesus is pictured as coming in judgment. Isaiah 11:4b, **He will strik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with the breath of his lips he will slay the wicked.**

We ask, how can the glory of God fill the earth amidst such wickedness?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can only come when the wicked are judged. Yet, as God’s revelation to Habakkuk spreads—that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the earth is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Even so, fulfilment of these words from Habakkuk await the return of Christ. 2:3a,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Like Habakkuk, we must be patient, and wait.

하박국 2:14 은 (처음에는) 2:12-13 에 나오는 하나님 심판의 강렬한 불길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14 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지만 이사야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할 때 (이사야 11:9), 그의 예언은 주 예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가 심판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사야 11:4b,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러한 악함 가운데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악인이 심판 받을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가 널리 퍼지면서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박국의 이 묵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2:3a,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처럼,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Habakkuk’s fourth woe is found in 2:15-17. 2:15, **“Woe to him who gives drink to his neighbours, pouring it from the wineskin till they are drunk, so that he can gaze on their naked bodies.”** Apparently the Babylonians would get people drunk and then manipulate them into degrading situations. This is not uncommon today. Too many people are unable to control themselves when they get drunk.

The growing use of these drugs of addiction is a curse on our society. Once again, though, the effects are turned back on those who abuse others in this way. 2:16, **“You will be filled with shame instead of glory. Now it is your turn! Drink and be exposed! The cup from the LORD’s right hand is coming around to you, and disgrace will cover your glory.”**

하박국의 네 번째 화는 2:15-17 절에 나옵니다. 2:15 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빌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고 그들을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도록 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독적인 약물 사용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2:16 절입니다,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The *cup of the Lord* contains His wrath. Again, the book of Revelation speaks to us about this. 17:4, **The woman** (the prostitute who sums up Babylon)... **held a golden cup in her hand, filled with**

abominable things and the filth of her adulteries. In Habakkuk 2:16, God's word to her—to Babylon and to all the wicked—is, **Drink and be exposed!** Did the Babylonians really think that they could get away with mocking God? Can the wicked today think the same?

Is there an answer to the ungodly behaviour that we see around us today? Maybe not in our lifetime, but the Lord Jesus provides the ultimate answer.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 Lord Jesus prayed that He might not have to drink the cup of God's wrath against sin (Mark 14:36). That cup contained the sins of the world and God's judgment on them. The only way to bring salvation to a corrupt and violent world was for Him to drink that cup and drain it.

여호와와의 잔은 그의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7:4, **그 여자**(바빌론을 상징하는 창녀)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박국 2:16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 - 바빌론과 모든 악인들 -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바빌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악인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사악한 행동들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사는 동안은 없겠지만, 주 예수께서 궁극적인 답을 주십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4:36). 그 잔은 세상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았습니다. 부패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가 그 컵을 마시고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Jesus drank it. He gave His blood to atone for all the blood shed in the world, by the world. Now, He holds out the cup of His own shed blood, the blood of the new covenant,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Matthew 26:28). And so the Lord invites us to drink from the cup of salvation. We do, in order that we don't have to drink from the other cup, the cup of God's wrath.

There's another side to this fourth woe, in 2:17, **"The violence you have done to Lebanon will overwhelm you, and your destruction of animals will terrify you."** The forests in Lebanon were systematically destroyed by the Babylonians. They also destroyed large numbers of wild animals. All of that was done in the name of conquest and building an empire. Such violence, directed at the world God created, will also return to **overwhelm** the Babylonians.

예수께서 그것을 마시셨습니다. 세상에 의해, 이 세상에 흘러진 모든 피에 대한 대속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흘린 피, 새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28)가 담긴 잔을 내밀고 계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구원의 잔을 마시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그 잔을 마십니다.

네 번째 화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2:17 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레바논의 삼림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수의 야생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복과 제국의 건설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그러한 강포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This is also relevant for us, today. God will hold to account those who destroy the Earth He created. As Christian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care for God's creation. That was God's word to Adam in Eden at the beginning (Genesis 2:16). So too, we are not to pollute and destroy what He has made.

Habakkuk 2:18-20 are the fifth and last woe. 2:18, **"Of what value is an idol, since a man has carved it? Or an image that teaches lies? For he who makes it trusts in his own creation; he makes idols that cannot speak."** Habakkuk clearly speaks against idolatry. An idol is lifeless and useless. You know it cannot speak.

It's interesting, for those who worship idols would probably agree with you. They would tell you that they worship the god whom the idol represents. Which god? I ask, for idols are tools of Satan, the father of lies. In effect, idol worship is satanic. Idols lead worshippers into error, something that pleases Satan. Thus, they come between the true and living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 땅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초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16).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하박국 2:18-20 절은 다섯째이자 마지막 화를 이야기합니다. 2:18 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박국이 우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고 쓸모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대표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신 말입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는데, 우상은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는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은 그 섬기는 자들을 실수로, 즉 사탄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로 이끕니다. 따라서, 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이로 들어옵니다.

Anything that comes between you and the Lord God is an idol. Whatever becomes the focal point of our lives, that for which we live, is essentially an idol. It may be your possessions, your home, your career or even your family. Once they become the centre of your life, they are as foolish as any wooden or stone idol. Habakkuk says, 2:19, “**Woe to him who says to wood, ‘Come to life!’ Or to lifeless stone, ‘Wake up!’ Can it give guidance? It is covered with gold and silver; there is no breath in it.**”

Habakkuk 2:20 is a word to the world. “**But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let all the earth be silent before him.**” Here is the contrast between the living God and dead, silent idols. We’re not to worship an idol that cannot speak. Rather, let us worship God, before whom all creation stands silent, in awe and reverence. Worship God, who speaks to us in His Word.

Habakkuk is now assured that God is on His throne. From there, God directs history for His purposes and for His glory. God is in control, even over this dark world.

여러분과 주 하나님 사이에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물, 집, 커리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것들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들은 어떤 나무로 만든 혹은 돌로 만든 우상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2:19 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박국 2:20 절은 이 세상에 하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말없는 우상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두려움과 숭배로 모든 피조물이 잠잠해지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좌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역사를 연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심지어 이 어두운 세상조차 그분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Again, we turn to the book of Revelation, to 8:1, to the opening of the seventh scroll. **When he opened the seventh scroll, there was silence in heaven for about half an hour.** As the final, great day of the wrath of the Lamb (the Lord Jesus Christ) comes, the whole of heaven stands in silence. They stand in awe of the dreadful event that is about to happen.

How do you feel when you read through passages of the Bible, such as Habakkuk 2:6-20? Yes, we’ve had glimpses of God’s sovereignty. We’ve seen His promise in 2: 4 to the righteous. In 2:14, 20 we’ve seen something of His glory. But, for the most part, this section has dealt with His justice. The sins of the wicked will lead to their downfall. How do you feel about that?

다시 요한계시록 8:1 절,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여는 장면으로 돌아갑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최후의 날이 오면서, 하늘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그들은 곧 일어날 끔찍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하박국 2:6-20 절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2:4 절에서 의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2:14, 20 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대부분은 그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는 그들의 몰락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You could say that they deserve what's coming to them. That may be true, but do we deserve any better? After all, the Bible teaches that no one can call themselves righteous (Romans 3:10). Nothing in us merits God's salvation. Well, you could perhaps note the end of the wicked and turn to God in repentance and faith. There is good value in that if you're not a Christian. But I don't want to trust in Christ just to avoid punishment on Christ's return.

Instead, let us respond to God's love, His mercy and grace. Let us trust in Christ, acknowledging that He suffered, died and rose again, in our place.

그들이 곧 그들에게 닥칠 일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보다 나은 것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결국 성경은 아무도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3:10). 우리 안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글썄요, 아마 여러분의 악인의 끝을 보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자비와 은혜에 응답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합시다.

There's another way to respond. Weep! The Lord Jesus, on His final approach to Jerusalem, wept (Luke 19:41). He wept because they **did not recognise the time of God's coming**. Here are His words concerning their future, when their enemies come upon them (19:44), **"They will dash you to the ground, you and the children within your walls. They will not leave one stone 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Yes, weep. Weep for the lost who face a Christ-less eternity.

But you can do more than weep. The Lord Jesus went about preaching and t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As His disciples, that's what we want to do. By the life that you live and by the words that you say, urge sinners, to trust wholly in the Lord Jesus Christ. That's God's plan. It's part of His big picture. Amen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41). 예수께서 우신 것은 그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의 미래에 관한, 그들의 적이 그들에게 닥치는 순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9: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을 대면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우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로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에 의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들로서 죄인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아멘.